



관내 동향

□ KAI, 항공기 · 헬기 훈련체계 826억 규모 사업 수주

- 한국항공우주산업(카이)은 11월 26일 강원지방조달청과 'KA-32T 모의비행 훈련장치 도입사업'을 계약한 데 이어 11월 27일 방위사업청과 'T-50 시뮬레이터사업 및 TA-50 Block2 훈련체계사업'을 체결
- 사업규모는 총 826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산림청의 KA-32T 모의비행 훈련장치는 2022년, T-50 계열 훈련체계는 2023년 상반기까지 임
- 훈련체계는 가상훈련이 가능한 시뮬레이터와 임무지원체계, 교보재 등이 포함된 훈련시스템으로 실제와 같은 훈련 경험을 통해 교육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
- 카이는 첨단기술을 접목해 잠재수요가 높은 미래형 훈련시스템 및 비항공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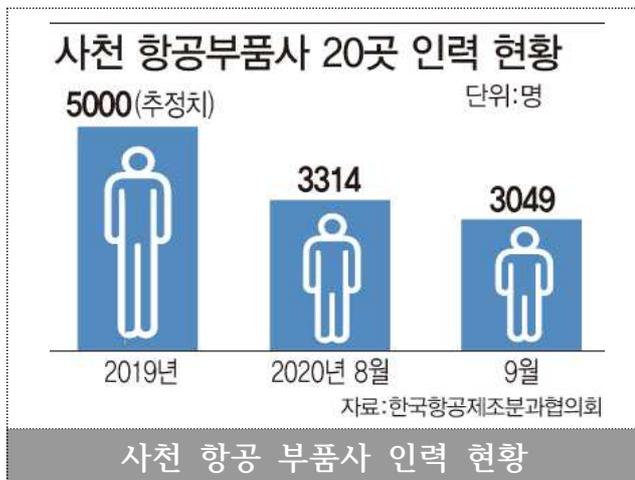
- 명 칭 : KA-32
- 기본중량 : 11,000kg
- 최대이륙중량 : 6,640kg
- 속 도 : 최대 230km/h , 순항 200km/h
- 순항시간 : 3시간 10 분
- 탑승인원 : 평소 14명 (최대 18명)



- 명 칭 : T-50
- 최대속도 : 마하 1.5
- 전 장 : 13~14 m
- 기 폭 : 9.45 m
- 기 고 : 4.94 m
- 실용상승고도 : 12.2 km

□코로나19 항공부품사 일자리 2000개 날렸다

- 11월 25일 한국항공제조분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사천 항공부품 중소기업들의 현장 인력 규모(주요 20개사 기준)는 총 3049명으로, 한 달 전보다 265명 감소
- 코로나19로 줄어든 일감으로 유휴인력들이 급격히 늘어나자 휴업조치,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
-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**항공부품 중소기업들의 일감은 지난해보다 약 50% 감소**, 사천 산단은 국내 항공제조 생태계의 중심인 만큼 이곳이 붕괴되면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
- 국내 항공부품산업 생태계가 망가지면 코로나19 이후 볼트 하나가 없어 항공부품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, **정부와 금융권이 생태계 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**



국내 동향

□ 물류대란에 항공업계 화물 사업 박차

-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항공사는 화물 운송으로 줄어든 여객 수익을 당분간 만회할 수 있을 것
- 올해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증가한데다 블랙프라이데이,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일어난 물류대란으로 현재 해운업계는 화물선

- 부족에 이어 컨테이너까지 부족한 상황
- 이에 해상 운임이 급등하자 항공 운송으로 전환하는 물량이 늘어나며 **항공운임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항공업계도 호재**
-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생산될 경우를 대비해 콜드체인 운송 시스템도 마련, **항공업계 화물 특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**

□ **국내 최장거리 80.6km 드론 택배 비행 성공**

- ‘택배드론’이 악천후 속에서 인천 육지에서 80km 떨어진 섬까지 국내 최장거리 비행에 성공, 육지서 섬까지 **드론으로 각종 물품을 배달하는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기대**
- (주)파블로항공은 길이 3.6m 규모의 ‘수직이착륙 드론’ 2대에 의약품 등을 싣고,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영흥도와 자월도까지 80.6km를 1시간20분간 선회 비행해 물품 배송 성공
- 파블로항공 측은 안전성과 보안 문제를 강화해 2022년부터 **물류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택배드론을 투입할 계획**



해외 동향

□ **이제 달 · 화성 가는 로켓도 '3D 프린터'로 만든다**

- 민간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, 이와 함께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모빌리티 '뉴스페이스(New Space)'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가 몰리고 **우주 3D 프린팅 기술에 새롭게 주목**
- 세계에서 가장 큰 금속 3D 프린팅 기계를 보유한 렐러티버티 스페이스는 미국 항공우주국(NASA)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, 이 업체가 대형 금속 3D 프린터로 인쇄한 궤도 로켓은 NASA의 손으로 넘어가 우주로 쏘아질 예정

- 현재 글로벌 3D프린팅 산업은 항공, 우주 등 고가산업용 시장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
- 전문시장 조사기관 윌러스에소시에이츠에 따르면 2018년 97억달러(약 11조원) 규모였던 3D프린팅 시장은 오는 2024년까지 355억달러(약 43조원) 규모로 성장할 전망

작성일	2020. 12. 14.(월)	보고일	2020. 12. 18.(금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8)